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8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최진혁 소프트웨어융합과장(02-2110-5151), 임성민 사무관(5156)		

#메일제도 본격시행 및 U-Paperless 포럼 개최
-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**8.28일(화) 국무회의**에서 공인전자주소(#메일),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**「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」이 의결**됨에 따라, 국내 **전자문서 확산이 본격화**될 전망(9.2일 시행)

□ 개정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바뀌게 될 전자문서 정책관련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① 전자문서 기본법 탄생

○ 「전자거래 기본법」이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으로 개칭되고,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세부시책 수립 등이 규정됨에 따라 동법이 전자문서 관련 기본법 기능을 수행

② 세계 최초 공인전자주소(#메일) 제도 도입

○ 공인전자주소(#메일)은 @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"등기"와 같은 역할을 함

*（개인）hongkildong#hongkildong.pe （법인）hongkildong#mke.go

- 기업·개인은 #메일로 각종 계약서,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,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#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음

○ #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(www.npost.kr)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및 사용이 가능

- 개인의 #메일 등록은 무료이나, 법인은 등록시 수수료를 부담하고, 개인·법인 모두 #메일 수신은 무료이나, 송신은 수수료를 부담

- #메일 제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지경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

③ 전자문서중계자제도 신설

○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#메일로 각종 청구서, 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



○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,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 및 시설·장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

○ 지식경제부는 9월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, 시설·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경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

④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사업 참여 촉진

○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(舊 공인전자문서보관소)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 진입 허용

- 다만, 대규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업무영역을 "서신 등 의사전달물"로 한정

○ 또한,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고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가요건(자본금) 차별화

<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본금 요건>

	영리법인	비영리법인
공인전자문서 센터	80억원	20억원
공인전자문서 중계자	20억원	10억원

□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 시행으로 연간 2.36억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어 3,100억원이 절감되는 한편,

○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, 솔루션, 장비 등 연간 700억원의 新시장이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

○ 정부는 우리나라가 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#메일을 전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, 국가간 전자문서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

□ 한편, 전자문서 관련 제도와 비즈니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「2002 u-페이퍼리스 코리아 컨퍼런스」가 8.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

○ 동 행사에는 공공기관 전자문서 정책담당자를 비롯,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해 전자문서 정책과 산업을 논의

○ 특히,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태블릿PC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, 계약결과를 스마트폰 #메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

< 윤상직 차관 시연내용 >

<태블릿PC로 계좌신청서 작성>	<#메일 등록신청>	<#메일로 계좌개설 확인>
		

○ 또한 종이없는 병원, 가족관계증명서(舊 호적등본) 해외발급 등 국내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될 예정

- 종이없는 병원은 태블릿PC로 입원약정서, 수술 동의서 등 모든 원무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·보관하는 서비스 모델

-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 서비스는 재외공관이 #메일을 이용해 해외동포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

  * 대법원과 외교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·중국 등 6개국, 27개 공관에서 서비스

- 이밖에도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, 세금계산서, 대학 편입학 서류 등을 #메일로 유통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·장비 등도 전시

○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(www.dca.or.kr/vip.html)으로 확인 가능하며, 등록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

* 참고 : 자료 사진

<가족관계등록부 해외발급>



<종이없는 병원 서비스>



<태블릿PC를 이용한 보험청약>



<#메일로 근저당 설정 확인서 송부>

